



중소기업청, 15개 업종별 조합에 전자상거래 구축지원

중소기업청은 조합을 중심으로 한 조합회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국 15개 조합·단체를 업종 클러스터로 지정, 40억원의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15개 조합·단체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정보화경영을 위한 상시적 교육 및 기초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기청의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업종별 조합(또는 연합회) 및 회원사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 클러스터가 제시하는 정보화 추진과제를 발굴, 조합 간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별 기업의 전자카달로그, 조합 포털시스템 구축 등 조합별 특화된 산업컨텐츠 육성 및 공통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 제조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업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중기청이 추진하는 타 정보화지원사업과 연계해 정보화 추진을 집중 지원하는 등 조합 및 단체를 정보화지원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IITA, IT응용기술개발 용자자금 150억원 추가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IT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IT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비를 150

억원 증액(당초 1800억원)해 융자한다.

IITA는 자금지원 확대와 아울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부의 IT839전략에 부응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 사업비 증액분 150억원을 기술담보대출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3/4분기 현재 연 2.81%이며, 지원한도는 총 소요자금의 90%이내에서 과제당 20억원, 동일인당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시중은행 자금이나 타 정책자금에 비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IT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93년 이후 총 5,330여개 기업에 1조8,4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1조7,371억원(94.3%)을 중소기업에 투입하여 IT중소기업의 핵심 정책자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중소기업 우대정책 및 '02년에 도입한 기술담보대출로 중소기업에 지원한 결과이다.

기술담보대출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확대를 위해 기존의 담보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로 기술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하는 제도로 2002년 9월 이후 1,147개 중소기업에 3,910여억원을 지원하였다.

기술담보대출의 자금신청은 우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전산접수 후 해당 지역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보증평가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1230억 규모 수급기업 ABS 발행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발행하기로 한 총 2,8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중 제1차 발행분 1,230억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9월 5일 발행했다.

중소기업청은 한양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6월중 기업들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329업체(9845억원)가 신청하였고, 이중 68업체를 선정하여 9월 5일 1230억원의 ABS를 발행한다. 참가기업의 신용등급별 현황을 보면, BB 3개업체 100억원, BB- 5개업체 140억원, B+ 21개업체 420억원, B 38개업체 560억원, B- 1개업체 10억원이다.